

“수출기업 여신 호남권 4.8% 불과… 지역 균형 지원 절실”

안도걸, 수출입은행 국감서 권역별 목표 세분화 촉구 수도권·영남 86.5%… 공급망안정화기금 성과 관리도

초대형 해외수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도권과 영남권 등에 80% 이상 집중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 공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실질적인 성과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전남광주 동구남구·사진)은 20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역·기업별 여신 공급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조속한 도입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성과 제고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은의 여신 공급 비중은 수도권 56.1%, 영남권 30.4%로 두 권역에 전체의 86.5%가 집중됐다. 반면 호남권 비중은 4.8%에 그쳤다.



기업별 편중도 나타났다.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여신의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을 제외하면 비수도권 여신 비중은

43.9%에서 39.3%로 낮아졌다. 수은이 설정한 비수도권 여신 목표인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목표로 설정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역별 여신 공급 목표를 세분화하고, 대형 여신을 제외한 보완지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지원이 부족한 권역의 중소·중견기업에 급리와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전략수출금융기금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방산·원전·조선 등 초대형 해외 수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은의 신용공여 한도가 금융지원의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기금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수익을 실현한 뒤 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성과공유형 재원 조달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남부기술표를 기금 재원에서 제외하고 기존 수출금융기관과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수은 내부에 임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 확대에 걸맞은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 지원 승인액은 2024년 2조1000억원에서 2025년 7조1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8조1000억원에 달했다.

안 의원은 산업자원안보기금 등 유사 제도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의 투자 위험관리 및 국

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와 국내 생산량 등을 활용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구축해 지원이 실제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수출금융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지역별 금융지원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급망안정화기금 역시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인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친환경 소비·대중교통 혜택 챙기세요”

광주은행, 국토교통부 등 협력 ‘모두의그린카드’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BC카드와 협력해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고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상품 ‘모두의그린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두의그린카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K-GX(Korea 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추진에 발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을 결합한 상품이다.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동시에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주요 혜택은 △출근길 커피 전문점 이용 시 에코머니 포인트 10% 적립(오전 8시~10시) △점심시간 일반 음식점 이용 시 10% 적립(오전 11시~오후 2시) △버스·지하철·GTX 등 대중교통 이용 시 10~20% 적립 △KTX·고속버스 이용 및 전기·소수차 충전 시 20% 적립 등이다.

에코머니 포인트는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2만8000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녹색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과 지자체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친환경 생활을 지원하는 부가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 서비스와 연계해 대중교통



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이 추가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는 정률제와 지역 및 이용자 유형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정액제로 운영된다.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연회비는 해외점용(Mastercard) 1만2000원, 국내전용(Local) 1만원이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두의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korea-pas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출 카드사업부장은 “모두의그린카드는 정부의 녹색전환 정책과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연계해 고객들이 일상에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면서 생활비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신협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포항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신협 독도원정대’를 운영하고, 독도 서도 물골 및 통행로 정비사업 기념행사와 지역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진행했다.

전남광주 농식품, 중국 충칭서 소비자 만난다

농기원, 내달 30일까지 우수 농식품 특별전 개최

지역 제품 29품목 선봬… 한식 체험·수출 상담도

전남광주통합특산물농업기술원이 중국 충칭에서 지역 농식품을 선보이며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품 전시·판매에 한식 체험과 바이어 상담을 접목해 현지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수출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충칭시 도심 해변가 보행자거리에 ‘전남광주 우수 농식품 특별전’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은 1층 제품 전시·판매장과 6층 한식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지역 농식품

기업 5곳의 제품 21품목과 농업기술원이 개발에 참여한 건강음료 ‘하이뉴’ 3종, 유자 부산물을 활용한 화장품 5종 등 모두 29품목을 선보인다.

참여 기업은 오미록·월드트·농부누리·구래삼촌·담우다. 유자 콤팩트와 보성다크티, 유자 초코크런치, 김지전 믹스, 나물 가공식품 등 지역 농산물의 특색을 살린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한식 체험관에서는 현지 한식당과 협업체 참여 기업의 제품으로 만든 비빔밥·잡채·나물전·된장국 등을 제공한다. 소비자

가 제품을 직접 맛보고 다양한 활용법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플루언서의 실시간 방송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참여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농업기술원은 상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용철 전남광주농기원 기술지원국장은 “이번 홍보관은 전남광주 농식품과 농업기술원의 연구성과를 중국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이는 자리”라며 “우수한 지역 농식품이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협, 국가문화유산 보존 후원

독도 통행로정비사업·발전금

신협이 독도 보존 사업에 내년부터 약 16억원을 지원하고 울릉도 지역 문화유산 보호에도 힘을 보탠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포항과 울릉도·독도 일원에서 ‘신협 독도원정대’를 운영하고, 독도 서도 물골 및 통행로 정비사업 기념행사와 지역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원정대에는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극 활성화 캠페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 3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독도박물관에서 전문 해설을 들으며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문화를 살펴보고, 문화유산인 동돌리 가족에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신협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독도 서도 물골 및 통행로 정비사업 기념행사도 열었다. 행사에서는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독도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신협은 국가유산 보존과 독도 수호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극’과 ‘독도 사랑장금’의 만기 해지 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계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독도 서도 물골 및 통행로 정비사업에 2027년까지 약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릉도 지역 문화유산을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신협은 지난 15일 울릉 역사문화체험센터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체험센터의 시설 유지·관리와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릉 역사문화체험센터는 울릉도의 근현대 역사와 독도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지역 문화 거점 공간이다. 이번 지원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역사·문화 자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의 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협의 독도 관련 사회공헌 활동은 금융상품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출시한 ‘독도사랑장전금’은 판매한도 10만좌를 채우며 출시 12일 만인 8월 7일 판매가 종료됐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적극’도 누적 가입금액 1306억원을 기록했으며, 현재 두 상품 모두 판매가 종료된 상태다.

신협은 2020년부터 무형유산 전승자 지원과 4대강 및 전국 고령 초저교체 등 국가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공익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독도원정대는 신협 직원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국가유산 보존의 가치를 체감하고, 울릉도 지역문화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통장 잔액 늘리면 현금 리워드”

‘주간 money 줍줍’ 2차 이벤트… 최대 18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고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조기 종료된 ‘주머니(주간 money 줍줍) 이벤트’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이벤트는 입출금통장 잔액을 늘린 고객에게 매주 현금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광주은행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보다 많은 고객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후속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대상은 광주은행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음모 후 매주 잔액 증가 목표를 달성하면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목표 달성 여부는 지난 9월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입출금계좌 평균잔액 증가분을 비교해 산정한다.

주간 평균잔액 증가 목표는 100만

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등 총 4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달성 구간에 따라 매주 600원부터 최대 1만 2000원까지 현금 리워드가 지급되며, 이벤트 기간 동안 매주 목표를 달성할 경우 1인당 최대 1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문상용 신성장사업부장은 “지난 1차 이벤트에 보내주신 고객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은행 영업점이나 광주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농협, 부실채권 정리 다각화… NPL펀드 활용 모색

농협상호금융 신규 도입 펀드 이해도 제고

농축협이 부실채권 정리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전남농협이 새로운 부실채권 매각 방식인 NPL펀드 활용을 통한 자산건전성 개선에 나섰다.

농협전남본부는 최근 전남지역 농축협 임직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례 축과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한 NPL(부실채권) 펀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

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협상호금융이 새롭게 도입하는 NPL펀드의 운영 방식과 참여 절차를 안내하고, 농축협의 부실채권 정리 채널을 다각화해 상호금융 연계를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NPL펀드의 도입 취지와 운영 구조, 참여 절차 및 주요 검토사항 등을 살

펴봤다. 특히 새로운 매각 방식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확대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광일 농협전남본부장은 “연체감축은 농축협의 건전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NPL펀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축협과 긴밀히 협력하고, 부실채권 정리와 자산건전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호남데이터청, 내달 4일까지 지역별 고용조사

4만4000가구 대상… 고용정책 기초자료 생산

전남광주 지역의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맞춤형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할 통계조사가 시작된다.

국가데이터청 호남지방데이터청은 다

구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구 단위의 고용률과 실업률 등 주요 고용지표를 생산하기 위해 마련

됐다. 지역별 노동시장 특성과 취업자의 산업·직업 분포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조사는 인터넷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며, 면접조사는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